‘퀄 통과’만 남았다… 삼성전자, 점유율 70% SK에 도전장

삼성 vs SK ‘HBM’ 경쟁

삼성전자 ‘베어다이 테스트’ 통과
이달 중에 ‘품질검증’ 통과 목표
10나노급 6세대 D램 생산도 박차

SK하이닉스, HBM3E 70% 점유
10월부터 ‘12단 HBM4’ 양산 돌입

삼성전자의 36GB 12단 HBM3E(사진 위),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동력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5세대 HBM(HBM3E) 시장 점유율 70%를 굳히며 압도적 우위를 점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12단 HBM3E의 베어다이 테스트 통과와 함께 평택·화성 생산라인 총동원 등 설비 투자로 본격 반격에 나섰다.

1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2단 HBM3E 제품이 최근 엔비디아가 진행한 ‘베어다이 테스트’에서 핵심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어다이 테스트는 그래픽처리장치(GPU)에 탑재되기 전 메모리 자체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사실상 양산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현재는 최종 패키지 상태에서 품질검증(퀄)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6월 중 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2월부터 12단 HBM3E의 선제 양산에 돌입한 상태다. 이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인 ‘B100’ 등 주요 고객사 수주를 위한 ‘물량 선점’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HBM3E 추격과 동시에 차세대 HBM4 시장 선점을 위한 ‘설비 투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핵심 부품인 ‘10나노급 6세대(1c) D램’의 생산 능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평택 제4캠퍼스(P4)에 1c D램 라인을 구축했으며, 현재 월 3만 장 규모인 생산능력을 하반기 중 4만 장까지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화성17라인의 일부 공정을 1c D램 생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기반의 12단 HBM4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 열압 방식보다 신호 지연을 줄이고 전송 안정성을 높이는 첨단 적층 기술로,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양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한발 앞서 있다. 현재 HBM3E 시장 점유율 약 70%로, 12단 HBM3E를 이미 양산 중이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12단 HBM4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고해상도 계측 장비와 열 프로파일 정밀 제어 등 공정 전반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초기 수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HBM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선 ‘최종 품질 검증’을 마치는 것은 물론,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HBM4는 입출력(IO) 핀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늘어나는 등 칩 설계와 제조 공정의 복잡도가 증가해 기존 HBM3E보다 가격이 30% 이상 비쌀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 난도가 높아지면서 수율 저하로 수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조선·방위株 시총 ‘껑충’, 車업종 ‘직격탄’

트럼프가 흔든 시총 산업지도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37위→13위
시가총액 14.6조 늘어 25조8470억

포스코홀딩스·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종목 주가 일제 하향곡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내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조선과 방위 업종은 시총이 껑충 뛰었지만, 자동차 업종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글로벌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8개 종목이 지난해 말 대비 순위가 바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총 1, 2위 자리를 지켰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였다. 지난해 말 37위에서 이달 13위로 24계단 뛰었다. 이 기간 시총은 11조2420억원에서 25조8470억원으로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수혜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130%에 달한다.

두 번째로 순위 상승폭이 큰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글로벌 군비 증강 기조와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지난해 말 27위에서 6위로 21계단 올랐다.

그 다음으로 순위가 많이 오른 종목은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및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조선주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33위에서 15위로 순위가 18계단 뛰었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24위에서 17위로 7계단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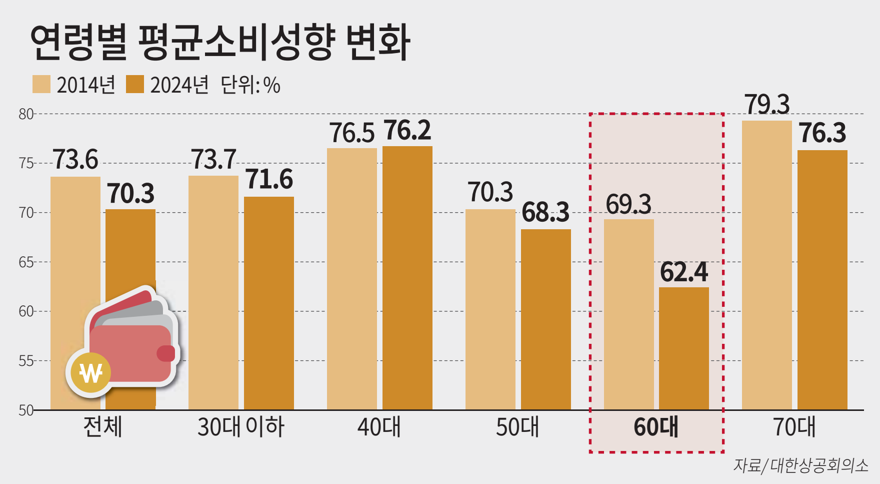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추진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금융주도 순위가 상향 조정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말 23위에서 이달 19위로 순위가 4계단 올랐으며, KB금융도 8위에서 이달 5위로 3계단 올라섰다.

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4위→3위), 삼성물산(15위→14위) 등도 순위가 소폭 올랐다.

반면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 하락과 미국발 관세 우려에 주가가 하향곡선을 그린 자동차 종목과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이어졌던 이차전지 종목은 일제히 순위가 미끄러졌다.

POSCO홀딩스(13위→20위) 순위가 7계단 하락해 내림폭이 가장 컸으며, LG에너지솔루션도 3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 현대모비스(12위→16위) 순위가 4계단 떨어져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으며, 기아(7위→10위)는 3계단 내려섰다. 현대차는 5위에서 7위로 2계단 밀려났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지갑 닫은 국민… 10년전 보다 소비지출↓

대한상의, 세대별 소비성향 변화
60대 69.3%→62.4% 큰 폭 감소
20·30대 월 257만원→248만원

대한상공회의가 세대별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 대비 소비지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1일 발간한 ‘세대별 소비성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2014년)과 비교해 2024년 평균소비성향(APC)이 하락한 가운데 60대의 평균소비성향이 2014년 69.3%에서 2024년 62.4%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심지어 20·30대의 월평균 소비액은 지난 2014년 257만원에서 2024년 248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소득이 늘었음에도 소비지출이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으며 평균소비성향은 2014년 대비 2024년에 전체적으로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 10년간 가장 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한 항목은 보건(2.6%p), 오락·문화(2.4%p), 음식(외식)·숙박(0.7%p), 주거·수도(0.7%p)순이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여가·취미 지출 확대, 외식·여행 등 가치소비의 보편화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항목의 지출비중 확대의 경우, 단순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시술이나 진료가 포함되어 있어 건강 등 웰에이징(well-age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료품·음료(-2.3%p), 의류·신발(-1.6%p) 등 전통적인 생필품과 교육(-0.9%p)의 소비 비중은 감소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정 간편식의 보편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인 구매 및 중고·공유경제 확산, 학생 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 품목 비중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음식·숙박, 주거·수도 지출 비중이 늘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보건 지출 비중이 증가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소비 부진은 단순한 불황 때문이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인구·소득·심리 등의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단기 부양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활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4년, 2024년 자료 기준)를 바탕으로 10년 전후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지출 및 소비성향 변화를 분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5년간 소비증가율 1%p 둔화 전망

한은, 고령층·1인가구 증가 영향
“가계부채 누적, 소득 양극화 이어져
소득 창출여력 등 변화, 소비에 영향”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로 2025~2030년 소비증가율이 약 1%포인트(p)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층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이들이 은퇴 후 소득이 제한되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영향이다. 1인가구도 취약가구 비중을 높여 소비증대 효과를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둔화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13~2024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001~2012년에 비해 연 평균 1.6%p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금리인하로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소비도 개선돼야 하지만,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소비 둔화가 인구구조 변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현 조사국 구조분석팀 차장은 “가계부채가 누적되고, 소득 양극화가 이어지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소득 창출여력, 소비성향, 소비구성이 변화해 소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는 생산 연령 인구수도 낮춰 노동 투입의 기여도를 줄인다. 줄어든 노동 기여도는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가계의 소득 창출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2024년 중 소비증가율은 인구감소로 평균 0.3%p 낮아졌다.

고령층의 증가도 한 몫했다.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대비로 전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는데 60대 이상의 고령층 확대가 전체 소비성향을 낮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차장은 “단기간에 추가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고령층일수록 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성향이 낮아진 55~69세 연령층 비중이 2010년 14%에서 2024년 23%로 확대돼 소비성향이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소비성향은 2010~2012년 76.5%에서 2022~2024년 70%로 6.5%p 감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